음주 운전 공무원 404명 신분 숨겼다 뒤늦게 들통

행자부, 전남도에 명단 통보 징계 지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소속 행정기관의 징계를 피했던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404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됐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여동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전남도 및 산하 시·군 공무원 404명(전남도청 36명, 시·군청 357명, 소방서 11명)의 명단을 전남도에 통보하고 이들을 징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바람이 불게 됐다. 또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일 경우 반드시 소속 관서에 기관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거나, 음주운전자의 신분(직업)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경우에 뒤따르는 징계 등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회사원, 사업 등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명단이 통보된 이들에 대해 '전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은 중징계의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정직, 해임)과 음주운전사고 도주(정직, 해임), 상습음주운전자(2년내에 2회 이상 적발),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 또는 사망사고유발시 등이며, 나머지는 혈중알콜농도와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경징계와 훈계로 구분된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중징계, 면허가 취소되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은 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시·군 및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문책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경찰서 유치장 3개로 통·폐합 운영

광주시내 5개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이 3개로 통·폐합 운영된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광역유치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서 유치장 통·폐합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장 통·폐합 방안은 불구속 수사원칙이 정착되면서 유치인 수가 줄어든데다 일선 경찰서의 인력과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유치장이 광역유치장으로 바뀌고, 남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의 유치장은 폐쇄된다. 북부경찰서의 유치장은 치안수요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출장 조사실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해 유치인에 대한 수사 편의를 돕기로 했다. /안현주기자 ahj@

한겨울 미나리 수확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24일 오후 나주시 노안면 성산마을에서 한 농민이 논에 심은 겨울철 별미인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기문 전 경찰청장 '보복 폭행' 연루 실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24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탤런트 이찬씨 항소심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거나 사실혼 당시 7개월 동안 7차례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그 중 일부는 임신 이후에 이뤄졌고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나우찬 〈7418〉 김종두

대충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광주지법 성·본 변경 허가 기준 이렇습니다

친아버지 양육비 주며 자녀와 교류 ×
친아버지 소식 없고 친어머니 재혼 ○

2006년 6월 재혼한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진모(7)양의 성(姓)과 본(本)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꿔 달라고 최근 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진양이 부모의 협의이혼 뒤 소식조차 모를 만큼 친아버지와 접촉이 없는 점 등을 따져 진양의 성을 새 아버지의 '김해 김씨'로 변경해 줬다.

반면, 법원은 친어머니가 새아버지와 동거를 하다 최근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고, 친아버지와의 교류가 활발한 데다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있는 3명의 친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B양의 변경 신청은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자녀의 성·본 변경청구가 급증하자 법원이 변경 허가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신청건수는 187건. 법원은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마쳐 4건을 허가하고 2건은 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은 신청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놓고 나이, 본인 의사, 친아버지와의 교류 여부, 재혼 가정의 결속력 등을 꼼꼼히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중 나이가 어리거나 취학을 앞둔 연령일수록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이 고려돼 허가 가능성이 커지지만, 기존 성으로 이미 교우관계가 형성된 고등학생의 경우는 변경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기에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혼한 뒤 형제·자매가 나뉘어 양육되고 있는지 여부도 허가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

또한, 계부가 직업이 없거나, 계부와의 친밀감 등도 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법원은 재혼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전 남편에 대한 증오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과 같게 하거나 성년이 된 사람이 불편·불만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고·위증 사범 된서리 맞는다

공판중심주의 강화…광주지법 엄벌 잇따라

법원이 무고·위증·허위소송 등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람들을 잇따라 엄벌에 처하고 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의 적발이 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법정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실한 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24일 내연남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조모(여·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지난해 9월13일 "동료가 나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뒤 관련 재판에서 종업원에게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신모(여·4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위증 사범 56명을 접수해 이 중 48명에 대한 재판을 했다. 재판 결과 ▲실형 4명 ▲집행유예 35명 ▲벌금형 8명 등이었다.

2006년 위증 처리 건수 7건에 비해 처리 건수도 크게 늘었지만, 재판 결과 또한 ▲집행유예 4명 ▲벌금형 1명 ▲무죄 2명 등에 비해 형벌도 높아졌다.

무고 사범 또한 지난해 52명에 대해 재판을 했고, 그 결과 ▲실형 5명 ▲집행유예 32명 ▲벌금형 11명 등이었다. 이는 전년(33건) ▲실형 4명 ▲집행유예 16명 ▲벌금형 6명 등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젠틀맨비뇨기과의원
www.urocare.co.kr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크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전화 (062)233-5119
광주 상무지구 롯데리츠 건너편 이연빌딩 3층

가출 청소년 꾀어 '티켓 영업'

쌍나팔

○…가출 청소년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고용한 뒤 속칭 '티켓' 영업을 해온 20대가 쇠고랑.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4일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조모(2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6년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W다방을 차려놓고 안모(17)양 등 가출 청소년 등 4명을 고용해 인근 모텔·원룸 등지로 차 배달을 내보낸 뒤 손님과 1회당 12만원의 화대를 받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지난해 초 가출한 안양 등은 같은 해 11월에도 광주시 서구 E 다방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적발돼 업주가 구속되자 한 달 뒤 조씨의 다방에 취업했다고. /안현주기자 ahj@